

#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 시 '법정최고형'

## 이원석 검찰총장 "특단의 각오로 대응하라" 국토부, 전국 단위 정보분석 등 정보 공유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협의회를 마련했다. 정부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검사장), 경찰청에서는 윤승영 수사국장(치안감), 국토부에서는 남영우 토지정책관(공익무원)이 참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협의회 전 윤 국장과 남 토지정책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이 피담홀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므로 특단의 각오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13일 대검에 전세사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꾸린 전세사기TF를 통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검·경과 국토부는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물론 전세사기의 배후세력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가 확인한 의심 거래, 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과 공유한다. 수사기관은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전세사기 수사에 착수하여 배후세력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

했다. 검·경은 수도권(서울·인천·수원)과 지방의 거점(대전·대구·부산·광주)에 핫라인을 구축한다. 전세사기 전담검사는 경찰의 구속의견서를 사전 검토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도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추가 의견서도 제출한다. 검·경·국토부는 수사에서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규모 및 회복 여부, 현재 주거 상황 등을 양형자료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다수 피해자 발생 시 '경합범 가중'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구형에 미달하는 형량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실질적 피해 회복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다. 황 부장은 "빌라왕, 건축왕 등 주요

사기사건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조직적 범행이 드러나고 있다. 추가 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세사기 엄단을 위해 유관기관이 빈틈없이 협력해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지속적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협의회를 통해 단속 외에도 피해회복, 제도개선 등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며 "적극적 협업으로 국가적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토지정책관은 "수사 협력체계 구축은 전세사기 범죄의 수사에서 공판까지 전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 유사범죄의 재발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선욱기자



### 나주경찰 금성지구대, 설 명절 안심 치안 활동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설 명절 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 광양경찰, 설 명절 사랑 나눔 위문 행사 거제

광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위 어려운 이웃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광양 YWCA 무료급식소에 방문하여 과일, 두유 등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전달하였다. 광양=김현근기자



### 담양경찰, 설 맞아 협력단체와 함께 노인 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맞이해 가난한 이들의 작은 자매회 담양분원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시설인 예수마음의집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 강진소방, 화재현장 방연마스크 성능 시험 훈련

강진소방서는 지난 17일 강진소방서 훈련장에서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돕는 방연마스크에 제품에 대해 성능 시험 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 광주 남부소방,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는 설 명절을 맞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광주 동부소방, 설 맞이 봉사활동 실시

광주동부소방서는 다가오는 설을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돌봄이웃 등을 찾아 훈훈한 사회 만들기 동참을 위한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보수단체, 이태원 분향소 철거 방송...희생자 모욕·조롱"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진행하는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재판의 첫 심문기일이 17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 부장판사 임정연)는 이날 오후 2시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협의회 측은 김 대표를 비롯한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들이 분향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현수막을 내걸어 추모 방해와 모욕하는 행위들을 일삼았으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의 요지를 설명했다.

협의회 측 대리인은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들은 분향소 바로 앞에서 무대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추모 미사를 방해하고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말을 확성기와 앰프로 사용해 방송했다"며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조롱했다"고 말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온전한 추모를 하고 싶었고, 시민들의 많은 위로를 받아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분향소 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구호와 색깔을 낸 적이 없다. 법정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하나 회의감이 든다"고 전했다. 반면 신자유연대 측은 협의회 측이 용산구청으로부터 도로 점령 허가도 받지 못했으며 분향소 내 정치

### 유가족 협의회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 모욕·조롱"

적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연대 측 대리인은 "협의회 측에서 분향소 설치가 구청으로부터 허가가 났다고 거짓말을 했고, 허가가 났다면 양보해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허가가 받지 않아 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25일 정의기억연대가 집회를 강행했으며 당시 '윤석열이 내려오는 그날까지'라는 정치적 발언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유가족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대리인은 "이종철 대표가 저희가 하지도 않은 시체팔이, 폭력 행사를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고소한 바 있다"며 "언론과 각종 유튜브도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태반"이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협의회 측에 실제 분향소 근처 방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신자유연대 측에서는 분향소 근처 집회와 시위의 주체와 법적 근거를 설명할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준비서면을 받은 뒤 다음 달 6일,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환기자

앞서 신자유연대는 분향소 인근에 '이태원 참사를 활용해 선동하는 이들은 몰려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당시 김 대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대책회의가 반정부 활동을 위해 이태원 사고에 손가락을 올리는 것이라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유가족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김 대표와 신자유연대에 대해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에 마련된 희생자 추모를 위한 분향소 출입 또는 접근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또 분향소 반경 100m 이내에서 방송이나 구호제창, 현수막 게시 등 행위를 통해 추모를 방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 대표에게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지난달 21일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김 대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대표는 두 번에 걸쳐 '유가족 텐트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팔이로 돈 벌려고 했다'고 말했다"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지만, 자신의 허위발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 설 앞두고 서울시, 고속-시외버스 증차 실시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가 연휴 3일 전인 18일부터 25일까지 고속, 시외버스 증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모습. 서울시는 한편 20일부터 25일 오전까지 설 종합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한다.

### 전라도 일대 돌며 빈 집털이 한 30대 '구속'

전라도 일대를 돌며 빈집에 침입해 가전제품과 공구 등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남원시 송동면의 한 주택에 침입, 창고문에 달려있는 자물쇠를 파손해 공구 16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북과 전남 등에서 총 14번, 2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공구 등을 훔쳤다. 훔친 물품은 온·오프라인에서 중고로 팔은 뒤 유희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뒤 위조 차량 번호판을 붙여 범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취지도 안되고 할게 이것 밖에 없어서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이슬비기자